『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향약집성방』「향약본초」, 『동의보감』「탕액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1]

오재근[1] **

Applications of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證類本草) o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and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鄕藥集成方)

[1]Korea Research Center of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KAIST

Oh Chae-kun[1*]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is a pharmacopoei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Song(宋) dynasty. After publishment, it had a decisive effect on East-Asian herbology of China, Korean & Japan. Sakae Miki(三木榮), Tameto Okanisi(岡西爲人) wrote papers on the subjects of type, publishing process, bibliographic terms of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published in the early and middle years of Joseon Dynasty.

Moreover, Sakae Miki claimed that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from China had been a standard of herbology of Joseon Dynasty since its publishment, and herbology based on materia medica from countryside(鄕藥) also had occupied a part of herbology in Joseon Dynasty. Nevertheless the specific influences, from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to the medical books of Joseon Dynasty which established the herbology based on materia medica from countryside has never been handled so far.

So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to Joseon Dynasty, through a comparison with literature review. The main literatures for comparison are two representative medical books of Joseon Dynasty,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1433) &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1613), especially focusing on the pharmacognostic parts. The main comparing points on researching literatures will be the following: publication year of books; order of herbs; and quotations.

This paper will show which edition of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was utilized to publish two medical books of Joseon Dynasty, and the process how Korean herbology based on materia medica from countryside was transformed after accepting Chinese herbology.

Key Words :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동의보감),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증류본초),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향약집성방)

* 본 논문은 2011년 민족의학연구원-인제대인문의학연구소 춘계공동학술대회(2011.5.13, 서울)와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2011. 7. 25-29, Hefei, China) 중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논평을 맡아 지견을 넓혀주신 홍세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오재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I빌딩 C305호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
Tel : 042-350-8270 E-mail : dhworms@gmail.com

접수일(2011년 8월 20일), 수정일(2011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Ⅰ. 緖 論

『동의보감』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종합의서이다. 그 중 「탕액편」은 본초와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술로 조선 내에서 『정정동의보감탕액편(增訂東醫寶鑑湯液篇)』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간행되거나 [1], 일본에서 『東醫寶鑑湯液和名』, 『東醫寶鑑湯液篇藥名韓稱』, 『東醫寶鑑湯液篇諺字和解』 등의 전문 해설서가 등장할 만큼[2] 독립성이 강한 저작이기도 하다. 三木榮(1963)은 조선 시대 본초학을 설명하며 『동의보감』 「탕액편」을 조선 중기의 저작으로 구분하고 있고[3], 이상인(1992), 홍문화(1982) 등 역시 『동의보감』 「탕액편」 3권에 대해 조선 전기 향약의 자립을 일군 『향약집성방』의 전통을 바탕으로 성립된 본초학의 대표 저작이며 독창적인 저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4].

"옛 사람들은 의학을 배우려면 먼저 본초(本草)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초는 방대하고 번잡하며 여러 의가의 논의가 한결같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재가 반이나 된다[5]."

『동의보감』「집례」 중에 실려 있는 위 문장은 『동의보감』 본초 부분이 지니고 있는 내용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본초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는 『삼인극일방증병론(三因極一病證方論)』, 『유문사친(儒門事親)』 등 앞선 의서 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장으로[6] 여기서의 본초는 다름 아닌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가리킨다. 하지만 "본초가 방대하고 번잡하며 여러 의가의 논의가 한결같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재가 반이나 된다"라고 할 때의 본초는 『신농본초경』에 대한 주석가의 설명을 모아놓은 『증류본초』를 지칭한다.

『증류본초』는 송대 사천(四川) 진원(晉原)의 세의 당신미(唐愼微)가 편찬한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 계열 본초 서적을 통칭하는 용어로 편찬된 이래 수차례 개편을 반복하며 『신농본초경』을 위시한 정통 본초 서적 계열의 중심 서적이 되어 갔다(이후 『경사증류비급본초』 계열 본초 서적의 통칭어로 『증류본초』를 사용함). 특히 대관 년간에 처음 간행된 『경사증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이하 『대관본초』로 약칭함)와 이를 모본으로 삼아 정화 년간에 수정 간행된 『정화신수경사증류비용본초(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이하 『정화신수경사증류비용본초』는 『신수정화본초』로,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는 『정화본초』로 약칭함)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두 판본 계통의 대본이 된다.

『증류본초』는 조선의 본초학 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三木榮은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줄곧 『증류본초』가 의원 취재 시험 서적으로 선정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조선의 본초학 기준이 『증류본초』임을 주장한다[7]. 실제 조선 전기와 후기의 대표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은 모두 『증류본초』의 성과에 상당 부분 기대어 있다. 하지만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이 아직 『대관본초』와 『정화본초』의 두 가지 계통 중 어느 쪽의 것을 얼마만큼 참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조선 간행본 『증류본초』의 판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피는 한편 『향약집성방』「향약본초」, 『동의보감』「탕액편」의 일부 문장과 『대관본초』, 『정화본초』 두 계열 『증류본초』의 원문을 비교하여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이 각각 어떤 계통의 『증류본초』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의보감』「탕액편」이 종합 의서인

1)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736.
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22.
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p.356-357.
4)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25,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3.
5)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1.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66. "古人云, 欲學醫, 先讀本草以知藥性. 但本草浩繁, 諸家議論不一, 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
6) 王象礼 주편. 陈无择 저. 三因极一病证方论. 陈无择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05. p.33. "医不读本草, 何以知名德性味, 养生延年." 王军 외 교정. 张从政 저. 儒门事亲. 金元四大家医学全书. 天津. 天津科学技术出版社. 1999. p.495. 『儒门事亲』「治病」 "不读本草, 焉知药性?"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53.

『동의보감』의 한 구성 부분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본초학 저작으로서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증류본초』가 조선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Ⅱ. 本 論

1. 자료 소개 및 선행 연구 고찰

본 논문에서 판본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대관본초』 판본은 일본 궁내청서릉부(宮內廳書陵部)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본 『경사증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M古3-2003-20, 21)이며[8], 『정화본초』는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명헌본(晦明軒本)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복각본(臺北, 南天書局, 1976)과[9] 일본 이와세문고(岩瀨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본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을 복제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769-25-1~25)이다[10].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은 모두 한국과학사학회 편찬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판본(서울, 여강출판사, 1988)을 활용한다. 『향약집성방』의 경우 현재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영인본이 가장 원문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양한 출처의 활자본과 필사본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11] 본 연구에 활용될 『향약집성방』 77-85권은 활자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본 『동의보감』은 순조 14년(1814) 중간본을 대본(臺本)으로 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 진주표(2007)는 『동의보감』「탕액편」 중의 본초 표기 인용 문장이 『증류본초』가 아닌 『증광화제국방도경본초약성총론(增廣和劑局方圖經本草藥性總論)』이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적에서 유래한다고 추론하고 있다[13]. 특히 그는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본초』의 내용은 거의 『증광화제국방도경본초약성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출된 것이며 『증류본초』를 보고 다시 집어넣은 것도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8종의 조선각본, 6종의 명초 각본을 토대로 교정한 일본의 향보경술관각본(享保庚戌官刻本)을 다시금 편찬해낸 고궁진본총간(故宮珍本叢刊) 『증광태평혜민화제국방』「증광태평화제도경본초약성총론」[14]과 『동의보감』「탕액편」을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추론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제상 처방서인 『태평혜민화제국방』 후반에 본초와 관련된 전문 정보를 다루고 있는 「약성총론」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분명 『동의보감』의 후반에 「탕액편」이 첨부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내용 중의 본초 분류 방식, 삼품 분류 여부, 개별 본초 배열 순서, 그리고 인용 서적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의보감』「탕액편」은 람본은 『증광화제국방도경본초약성총론』이기보다는 『증류본초』이거나 『향약집성방』「향약본초」일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의 『증류본초』 간행

『증류본초』가 차지하고 있는 의학사적인 본초학술사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증류본초』가 정부 주도로 편찬 또는 간행되었을 것임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10년(1464) 기사 중에는 의학 취재용 강서목록으로 『대전본초(大全本草)』가 기재되어있어 조선 초기부터 『대전본초』가 본초 서적의 기준이었음을 시사한다[15]. 『대전본초』는 정우 2년(1214)에 숭주하씨간본(嵩州夏氏刊本)으로 처음 간행된 『대관본초』

8)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 (국립중앙도서관. Available from: http://www.nl.go.kr.)
9) 中華百科全書(中華百科全書. Available from: http://ap6.pccu.edu.tw/encyclopedia_media/)
10)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 (국립중앙도서관. Available from: http://www.nl.go.kr.)
11) 안상우 외. 향약집성방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p.6.
12)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1.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
13) 진주표 역. 허준 외 찬.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897.
14) 许洪 편. 韩刚 정리. 增广太平惠民和剂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2. p.2.
15) 세조실록 10년 1월 2일. (조선왕조실록.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본 대전본초 목록 및 서문과 간기(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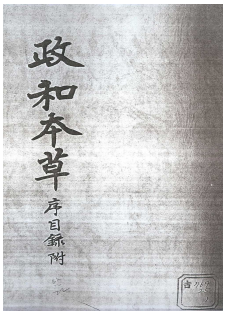
계통의 『증류본초』 판본이다. 숭주하씨간본은 『경사증류대관본초』의 말미에 『본초연의』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해지고 있지 않고 이를 저본으로 번각한 원대덕종문서원본(元大德宗文書院本) 『대전본초』가 전해지고 있다[16]. 『대관본초』의 이름이 『대전본초』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渡辺幸三은 적국인 宋의 大觀 연호를 피하기 위해 大全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추정하였지만[17] 李健(2009)은 金의 유민인 張存惠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판각할 때도 宋의 연호인 政和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초연의』를 추가하여 내용이 완전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당시에는 판각하는 곳에서 자주 책명을 바꾸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경사증류대전본초』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18]. 李健(2009)의 의견처럼 약재의 감별, 산지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초연의』의 내용을 더하여 『증류본초』의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으로 책명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三木榮(1973)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일본 궁내성도서료본(宮內省圖書寮本), 내각문고본(內閣文庫本), 대삼기념문고본(大森記念文庫本)으로 조선 번각본 『대관본초』가 보존되고 있다. 그 중 도서료본은 원대덕임인맹춘종문서원간본(元大德壬寅孟春宗文書院刊本)의 번각본이지만 간기(刊記)가 누락되어 있어 간행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고려 때 원으로부터 유입되었던 간본이 조선 초기에 재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19]. 일본 궁내성도서료에 소장되어 있던 조선본 『대관본초』 중에는 원(元) 대덕임인맹춘종문서원간행(大德壬寅孟春宗文書院刊行)이 인장이 새겨져 있어 원대덕종문서원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표 1). 三木榮(1973)은 조선본 『대관본초』가 말미에 『본초연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증류본초』 본래의 상태를 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20] 조선본 『대관본초』의 모본인 원대덕종문서원본 『대전본초』는 『대관본초』 말미에 『본초연의』를 덧붙인 숭주하씨간본 『대전본초』를 모본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21] 책의 말미에 『본초연의』와 함께 수록되어 있었을 간기가 『본초연의』와 함께 망실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화본초』의 경우 국내에는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 국립중앙도서관, 간송문고, 가천의대 및 한독의약박물관 등에 조선본 『증류본초』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하지만 일본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정화본초』가 내각문고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 판본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들이 궁내성도서료, 암뢰문고(岩瀨文庫),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 존경각(尊經閣), 무전행우서옥(武田杏雨書屋) 및 대만고궁박물원(臺灣故宮博物院) 등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본 『정화본초』는 25, 26권의 낱권과 암뢰문고 소장 30권 전체를 복제한 복제본 두 가지이다.

특히 이와세문고본의 복제본 표지 안쪽에는 "萬曆五年二月 內賜司諫院大司諫崔顯政和本草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張."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기재되어 있어 내사 년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표 2). 三木榮

16) 岡西爲人은 『대관본초』와 『정화본초』의 합병본이라는 제목으로 명대에 간행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大觀本草』와 『重刊經史證類大全本草』 계통의 서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重刊經史證類大全本草』 계통의 서적에 대해 형식은 『대관본초』를 내용은 『정화본초』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서술한 반면, 嵩州夏氏刊本 『經史證類大全本草』에 대해서는 『대관본초』 판본 계통 중의 하나라고 기재하였다(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20, 143).
17)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20.
18)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31.
1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6.
20)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7.
21)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21.
22) 전자판보 제17494호(전자판보. Available from: http://gwanbo.korea.go.kr), 한독약사관 편. 한독약사관 소장품목록. 서울. 한독약사관, 1970. p.222,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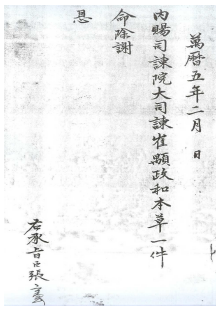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본 정화본초 표지와 내사기(內賜記)

(1973)은 이에 근거하여 조선의 정화본초 간행 년대를 선조 10년(1577)으로 추정하였고[23], 전자관보(2011. 4.25)에서도 대만 고궁박물원장(臺灣古宮博物院藏)본에 첨부되어 있는 또 다른 내사기의 내용, 즉 다른 벼슬을 하는 2인이 당시에 인출하지 않은 서적을 동시에 반사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선조 10년(1577)이 인출 시기라고 추정하고 있다[24]. 하지만 내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사본 『정화본초』 간행년의 하한 년도일 뿐이며 이를 통해 조선본 『정화본초』의 간행 시기를 선조 10년(1577)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선본 『정화본초』의 모본에 대해서는 책 중에 성화 4년(成化四年歲次戊子)에 작성된 서문과 간기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명대 이후 가장 널리 보급된[25] 성화본(成化本) 『정화본초』에 의거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성화본 『정화본초』 계열 판본 중 명 성화 4년(1468) 산동 원걸 각본을 모본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명 가정 2년(1523) 진봉오각본(陳鳳梧刻本)을 모본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26]. 먼저 丹波元簡은 『聿修堂藏書目錄』 중에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三十卷序目에 대해 "二十三冊朝鮮本依成化戊子本活版"이라고 기록하였고[27] 三木榮(1973) 역시 명 성화 4년의 중간본에 근거하여 번각해낸 조선 활자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8]. 이와 달리 渡辺幸三은 일본에서 원화 6년(1620)에 번각된 『본초서례(本草序例)』가 조선본 『정화본초』중에서 서례(序例)만을 중간한 것이며 그 중에 진봉오의 서(序)가 존재하므로 조선본 『정화본초』가 가정 2년의 진봉오각본(陳鳳梧刻本)을 모본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岡西爲人(1983) 역시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29]. 하지만 『본초서례』는 『증류본초』 중의 서례만을 따로 간행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판본 전체의 모본을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전 암뢰문고 소장 『정화본초』 중에서는 진봉오의 서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 성화 4년의 산동 원걸 각본 『정화본초』 이외에 가정 2년의 진봉오각본 『정화본초』 역시 조선에서 간행된 적이 있거나 또는 진봉오의 서문만을 추가시킨 『본초서례』가 간행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에서 중간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조선 초기에 존재하였던 『대관본초』는 원대덕종문서원본 『대전본초』의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정화본초』의 경우 어떤 판본을 모본으로 삼았는지 의견이 다소 엇갈리지만 가정 2년본 『정화본초』 역시 성화본 『정화본초』의 착오나 탈루를 답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30] 조선본 『정화본초』는 장존혜의 회명헌본 『정화본초』보다는 성화본 『정화본초』 계통으로 볼 수 있다.

3.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의 『증류본초』 활용

이하에서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이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중 어떤 계통의 『증류본초』 판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의 간행 년도,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의 본초 배열 순서, 그리고 『증류본초』 인용 원문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9.
24) 전자관보 제17494호(전자관보. Available from: http://gwanbo.korea.go.kr).
25)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63, 尙志均. 本草人生.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p.368.
26)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8,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41.
27) 안상우 외.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의 옛 의학책.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p.172-173.
28)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7.
29)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41.
30)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71.

(1)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의 간행 년도

『향약집성방』은 고려 말, 조선 초에 한반도에서 생산되거나 재배 가능한 약재, 즉 향약을 대상으로 당대 조선, 중국의 본초 및 포제학 지식을 총망라한 향약본초학의 집대성 저작물이다[31]. 세종 15년(1433)에 처음 간행된 이래 성종 9년(1478), 인조 11년(1633) 그리고 1943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간되었으며[32], 「향약본초」와 관련된 부분은 성종 9년(1478), 10년(1479), 19년(1488)에 그 내용을 추리고 도판을 증보하며, 언해하여 별도 간행되기도 하였다[33].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에 착수되어 광해군 5년(1613)년에 처음 간행된 이래 순조 14년(1814), 고종 11년(1874)에 중간되었으며[34] 지금까지도 반복하여 편찬 및 출판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 의서이다. 특히 본초와 관련된 전문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의보감』「탕액편」은 중국의 본초, 당약와 향약의 구별 뿐 아니라 독자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조선 초기 향약 활용의 전통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계승되었음을 시사한다.

간행 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대관본초』의 간행 년대는 조선 초기 그리고 『정화본초』의 간행 하한 년대는 선조 10년(1577)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본초』의 편찬과 관련된 보다 앞선 기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시기 상으로 보아 세종 15년(1433)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은 고려 때부터 전해져 오던 『대관본초』 계통의 번각본을[35], 그리고 선조 30년(1597)에 허준 등에 의해 저술이 시작된 『동의보감』은 『증류본초』 계열 서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금 앞서 유통된 『정화본초』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증류본초』와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의 본초 배열 순서

『향약집성방』「향약본초」와 『동의보감』「탕액편」은 『증류본초』의 모든 본초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특히 『향약집성방』「향약본초」의 경우 국내 자생 약재 630여 종을 중심으로 본초를 배열하고 있으며 『동의보감』「탕액편」은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하되 『향약집성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생 및 수입 본초의 경우 『증류본초』에 의거하거나 독자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36].

본초 배열 순서에 있어 『대관본초』와 『정화본초』는 4권 옥석부(玉石部) 중품(中品), 21권 충어부(蟲魚部) 중품, 23권 과부(果部) 상하품(上下品), 그리고 27권 채부(菜部) 상품(上品)에서 차이를 보인다[37]. 표 3에서는 『대관본초』, 『정화본초』,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 채부(菜部)의 본초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향약집성방』「향약본초」 채부 상품의 경우 현실(莧實), 호수(胡荽)가 백과자(白瓜子) 뒤, 개(芥)의 앞에 위치해 있으며, 황촉규화(黃蜀葵花), 촉규(蜀葵)가 임자(荏子)의 뒤, 첨과(甜瓜)의 앞에 위치하여 있다. 또한 『향약집성방』「향약본초」 채부 하품의 경우 『대관본초』와 동일하게 고호(苦瓠), 마치현(馬齒莧)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정화본초』의 경우 고호(苦瓠), 호(葫), 산(蒜), 호총(胡葱), 순(蓴), 수근(水蓳), 마치현(馬齒莧)의 순서로 되어 있어 『향약집성방』「향약본초」가 『정화본초』 보다 『대관본초』의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의보감』「탕액편」 채부의 경우 첫 번째, 『대관본초』와 『정화본초』에서 초부(草部) 중품지상(中品之上)에 위치하여 있던 건강과 생강, 과부(果部) 중품에 위치하여 있던 우자(芋), 오우(烏芋)를 제일 앞에 배치하여 본초의 각 부(部) 사이의 분류 변동 및 배열 순서의 변형을 꾀하고 있고, 두 번째,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채부 하품에 속해있던 마치현

31)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鄕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25.
3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7.
33) 성종실록 9년 11월 25일, 성종실록 10년 2월 13일, 성종실록 19년 9월 20일(조선왕조실록.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34)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01.
35)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219.
36)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5). p.62.
37) 岡西爲人. 本草槪說. 大阪. 創元社. 1983. pp.113-114,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p.24-25.

표 3. 『대관본초』, 『정화본초』,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채부의 본초 배열

구분	삼품	본초 배열
『대관본초』	上	冬葵子 蕪菁及蘆菔 瓜蒂 白冬瓜 白瓜子 莧實 胡荽 邪蒿 同蒿 羅勒 石胡荽 菘 苦菜 芥 萊菔 荏子 黃蜀葵花 蜀葵 甜瓜 胡瓜葉 越瓜 白芥 龍葵 苦耽 苦苣 苜蓿 薺 蕨 翹搖 甘藍
	中	蓼實 葱實 韭 薤 假蘇 白蕺荷 蘇 水蘇 香薷 薄荷 蒝菜 秦荻梨 醍醐草
	下	苦瓠 馬齒莧 葫 蒜 胡葱 蕈 水斳 茄子 藜蔞 鷄腸草 白苣 落葵 堇 蕺 馬芹子 芸臺 雍菜 菠薐 苦賈 鹿角菜 碧蓬 東風菜
『정화본초』	上	冬葵子 莧實 胡荽 邪蒿 同蒿 羅勒 石胡荽 蕪菁及蘆菔 瓜蒂 白冬瓜 白瓜子 甜瓜 胡瓜葉 越瓜 白芥 芥 萊菔 菘 苦菜 荏子 黃蜀葵花 蜀葵 龍葵 苦耽 苦苣 苜蓿 薺 蕨 翹搖 甘藍
	中	蓼實 葱實 韭 薤 蒝菜 假蘇 白蕺荷 蘇 水蘇 香薷 薄荷 秦荻梨 醍醐菜
	下	苦瓠 葫 蒜 胡葱 蕈 水斳 馬齒莧 茄子 藜蔞 鷄腸草 白苣 落葵 堇 蕺 馬芹子 芸臺 雍菜 菠薐 苦賈 鹿角菜 碧蓬 東風菜
『향약집성방』	上	冬葵子 蕪菁及蘆菔 瓜蒂 白冬瓜 白瓜子 莧實 胡荽 芥 萊菔 荏子 黃蜀葵花 蜀葵 甜瓜 胡瓜葉 白芥 苦苣 薺 蕨
	中	蓼實 葱實 韭 薤 假蘇 白蕺荷 蘇 水蘇 香薷 薄荷
	下	苦瓠 馬齒莧 葫 蒜 胡葱 蕈 水斳 茄子 藜蔞 鷄腸草 白苣 落葵 堇 蕺 芸薹
『동의보감』	-	生薑 乾薑 芋子 烏芋 冬葵子 紅蜀葵 黃蜀葵 莧實 馬齒莧 蔓菁 萊菔 菘菜 竹笋 西瓜 甜瓜 白冬瓜 胡瓜 絲瓜 芥菜 萵苣 苦苣 苦菜 薺菜 沙參 薺苨 桔梗 葱白 大蒜 韭菜 薤菜 荊芥 紫蘇 香薷 薄荷 茄子 水芹 蕈菜 蓼實 胡荽 羅勒 荏子 龍葵 蕨菜 苜蓿 蘘荷 蕺菜 芸蘭 碧蓬 菠薐 藜蔞 胡瓠 木耳 松耳 海菜 蔞蒿 木頭菜 白菜

* 본초명은 목록이 아닌 본문 중에 수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였다.
** 『동의보감』의 단락 구분은 『證類本草』 중에 沙蔘이 草部 上品之下, 薺苨는 草部 中品之下, 桔梗은 草部 下品之上에 속해있는 것에 의거하였다.

(馬齒莧)과 와거(萵苣)가 각각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채부 상품에 속해있는 현실(莧實)과 만청(蔓菁, 즉 蕪菁), 개채(芥菜)와 고채(苦菜) 사이로 이동되어져 있으며, 세 번째,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채부 상품에 속해있던 호수(胡荽), 라륵(羅勒), 임자(荏子), 용규(龍葵), 궐채(蕨菜), 목숙(苜蓿) 등은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채부 하품에 위치되어 있는 가자(茄子), 수근(水芹)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삼품 분류를 활용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형된 본초 배열에 따른 삼품분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오재근, 김용진(2010)에서 『동의보감』「탕액편」이 외형적으로 상중하의 삼품 분류를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초부(草部)의 개별 본초 배열 순서가 『증류본초』, 『향약집성방』과 동일하여 내재적으로 삼품 분류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과는[38] 사뭇 다른 모습으로 『동의보감』「탕액편」이 『신농본초경』 이래 『증류본초』 계열 본초 서적들이 고수해오던 것과는 별개의 본초의 분류 기준을 내재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이외에도 『동의보감』「탕액편」에서는 『대관본초』와 『정화본초』의 초부(草部)에 있던 생강(生薑), 더덕(沙蔘), 도라지(桔梗)와 목부(木部)에 있던 죽순(竹笋) 등이 채부(菜部)로 옮겨와 당대에 이들이 약재가 아닌 채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관본초』나 『정화본초』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수세미(絲瓜)가 새롭게 추가되어 당대의 새로운 본초학적 지식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3)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의 『증류본초』 인용 원문 비교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중 어떤 판본이 인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원문 인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대관본초』, 『정화본초』와 『향약집성방』「향약본초」, 『동의보감 』「탕액편」 중 '당귀(當歸)' 관련 조문을 통해 두 가지 조선 의서에 영향을 준 『증류본초』 판본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향약집성방』과 『대관본초』 및 『정화본초』의 문장을 비교해보자.

38)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5). p.63.

첫 번째, 『향약집성방』의 당귀 관련 조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증류본초』에 비해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증류본초』는 모두 도은거(陶隱居), 당본주(唐本注), 외대비요(外臺秘要), 우방(又方), 주후방(肘後方) 등의 설명을 빼곡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향약집성방』은 이를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신농본초경』, 『명의별록』으로 추정되는 문장과 약성론(藥性論), 도경(圖經), 일화자(日華子), 진주낭(珍珠囊) 등의 기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증류본초』의 내용 중 한반도에 자생하는 당귀와 관련된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인용하는 실용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증류본초』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차이로는 『진주낭』의 인용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연석 외(2002)는 『증류본초』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탕액본초』, 『진주낭』 등 13세기 말 중국의 최신 본초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점, 『본초연의』의 광범위한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향약집성방』의 작업 시기가 15세기인 점을 들어 12세기 초반의 판본인 『대관본초』보다는 13세기 중반의 『정화본초』를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39]. 『진주낭』과 관련된 기재를 통해 『탕액본초』를 비롯한 중국의 최신 본초 관련 정보가 조선 초에 한반도에 입수되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고, 『대관본초』보다 『정화본초』의 출간 년대와 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본초연의』의 경우 세종 조에 이미 의학취재 경서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단행본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40]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과 『정화본초』의 연관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세 번째, 『향약집성방』의 당귀 관련 조문이 『증류본초』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와 관련된 언급인 '生隴西川谷' 중에서

표 4. 『증류본초』,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의 當歸 관련 기재 비교

『大觀本草』	『政和本草』	『鄕藥集成方』	『東醫寶鑑』
當歸 味甘辛, 溫大溫, 無毒. 主欬逆上氣, 溫瘧寒熱洗音癬, 在皮膚中, 婦人漏下, 絶子, 諸惡瘡瘍音羊, 金瘡, 煮飮之. 溫中止痛, 除客血內塞, 中風, 痓, 汗不出, 濕痺, 中惡, 客氣, 虛冷, 補五藏, 生肌肉. 一名乾歸. 生隴西川谷. 二月八月採根, 陰乾. 惡菌茹, 畏菖蒲, 海藻, 牡蒙... 陶隱居... 唐本注... 藥性論云, 當歸, 臣惡熱麪. 止嘔逆, 虛勞, 寒熱, 破宿血, 主女子崩中, 下腸胃冷, 補諸不足, 止痢腹疼. 單煮飮汁, 治溫瘧, 主女人瀝血腰痛, 療牙疼痛不可忍. 患人虛冷, 加而用之. 日華子云,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去惡血, 養新血, 及主癥癖. 圖經曰, ... 春生苗, 綠葉有三瓣. 七八月開花似時羅, 淺紫色. 根黑黃色. 二月八月採根, 陰乾. 然苗有二種, 都類芎藭, 而葉有大小爲異, 莖梗比芎藭甚卑下. 根亦二種, 大葉名馬尾當歸, 細葉名蠶頭當歸. 大抵以肉厚而不枯者爲勝. 謹按爾雅云... 雷公云, 凡使先去塵并頭尖硬處一分已來, 酒浸一宿. 若要破血, 即使頭一節硬實處. 若要止痛止血, 即用尾. 若一時用, 不如不使, 服食無效, 單使妙也. 外臺秘要... 又方... 肘後方...	**當歸 味甘辛, 溫**大溫, **無毒**. 主欬逆上氣, 溫瘧寒熱洗洗音癬, 在皮膚中, **婦人漏**下, **絶子, 諸惡瘡瘍**音羊, **金瘡**, 煮飮之. 溫中止痛, 除**客血內塞**. 中風, 痓, 汗不出, 濕痺, 中惡, 客氣, 虛冷, **補五藏, 生肌肉**. 一名乾歸. 生隴西川谷. **二月八月採根, 陰乾**. 惡菌茹, 畏菖蒲, 海藻, 牡蒙... 陶隱居... 唐本注... 藥性論云, 當歸, 臣惡熱麪. 止嘔逆, 虛勞, 寒熱, 破宿血, 主女子崩中, 下腸胃冷, 補諸不足, **止痢腹痛**. 單煮飮汁, **治溫瘧**. 主女人瀝血腰痛, 療齒疼痛不可忍. 患人虛冷, 加而用之. 日華子云,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破惡血, 養新血, 及主癥癖**. 圖經曰, ... 春生苗, 綠葉有三瓣. 七八月開花似時羅, 淺紫色. 根黑黃色. 二月八月採根, 陰乾. 然苗有二種, 都類芎藭, 而葉有大小爲異, 莖梗比芎藭甚卑下. 根亦二種, 大葉名馬尾當歸, 細葉名蠶頭當歸. 大抵**以肉厚而不枯者爲勝**. 謹按爾雅云... 雷公云, 凡使先去塵并頭尖硬處一分已來, 酒浸一宿. 若**要破血, 即使頭一節硬實處. 若要止痛止血, 即用尾**. 若一時用, 不如不使, 服食無效, 單使妙也. 外臺秘要... 又方... 肘後方... 衍義曰, 當歸, 廣雅云, 山蘄古芹切, 當歸也, 似芹而麤大... 若然, 則今川蜀皆以平地作畦種, 尤肥好多脂肉, 不以平地山中爲等差, 但**肥潤不枯燥者佳**. 今醫家用此一種爲勝. 市人又以薄酒洒使肥潤, 不可不察也. 藥性論云, 補女子諸不足, 此說盡當歸之用也.	當歸 味甘辛, 溫大溫, 無毒. 主欬逆上氣, 溫瘧寒熱洗(音癬), 在皮膚中, 婦人漏下, 絶子, 諸惡瘡瘍(音羊), 金瘡, 煮飮之. 溫中止痛, 除客血內塞, 中風, 痓, 汗不出, 濕痺, 中惡, 客氣, 虛冷, 補五藏, 生肌肉. 一名乾歸. 生川谷. 二月八月採根, 陰乾. 惡菌茹, 畏菖蒲, 海藻. 藥性論云, 臣惡熱麪. 止嘔逆, 虛勞寒熱, 破宿血. 主女子崩中, 下腸胃冷, 補諸不足, 止痢腹疼. 單煮飮汁, 治溫瘧, 主女人瀝血腰痛. 治牙疼痛不可忍. 患人虛冷, 加而用之. ○日華子云,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去惡血, 養新血, 及主癥癖. ○圖經曰, 春生苗, 綠葉有三瓣. 七八月開花似時蘿, 淺紫色, 根黑黃色. 然苗有二種, 都類芎藭, 而葉有大小爲異, 莖梗比芎藭甚卑下. 根亦二種, 大葉名馬尾當歸, 細葉名蚕頭當歸. 大抵以肉厚而不枯者爲勝. ○眞珠囊云, 性溫味辛, 氣味俱薄, 可升可降, 陽也. 其用有三, 心經藥一也, 和血二也, 治諸病夜甚三也.	**當歸** 승엄조불휘 性**溫, 味甘辛, 無毒. 治一切風, 一切血, 一切勞, 破惡血, 養新血, 及主癥癖, 婦人**崩**漏, 絶子.** 療**諸惡瘡瘍, 金瘡, 客血內塞. 止痢**疾, **腹痛. 治溫瘧, 補五藏, 生肌肉.** ○生山野, 或種蒔**二月八月採根, 陰乾, 以肉厚而不枯者爲勝**. 又云, **肥潤不枯燥者爲佳.** 又云, 如馬尾者好. **○要破血, 卽使頭一節硬實處. 要止痛止血, 卽用尾**. 本草 ○用頭則破血, 用尾則止血, 若全用則一破一止, 卽和血也. 入手少陰, 以心主血也. 入足太陰, 以脾裹血也. 入足厥陰, 以肝藏血也. 湯液 ○氣血昏亂者, 服之卽定. 各有所當歸之功, 治上酒浸, 治外酒洗, 血病酒蒸, 痰用薑汁炒. 入門 ○得酒浸過, 良. 東垣

중국 지명을 삭제하고 '生川谷'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과[41] 『圖經』의 인용문 중에서 반복되는 문장인 '二月八月採根, 陰乾'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관본초』와 『정화본초』의 문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하지만 『정화본초』 중의 '寒熱洗洗音癬', '止痢腹痛', '療齒疼痛不可忍', '破惡血' 등의 표기를 따르지 않고 『대관본초』와 동일하게 '寒熱洗音癬', '止痢腹疼', '療牙疼痛不可忍', '去惡血'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은 『향약집성방』이 『정화본초』보다는 『대관본초』의 판본에 의존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케 한다[42].

이어서 『동의보감』과 『대관본초』 및 『정화본초』의 문장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동의보감』 당귀 조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승엄초불휘'라는 향약명의 기재이다. 『향약집성방』의 경우 당귀의 향약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황정(黃精) 조문에서는 '鄕名竹大根'이라고 하여 『동의보감』과 동일하게 향약명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이 모두 향약의 활용이라는 공통적인 명제를 가지고 기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의보감』 당귀 조문 중에 기재되어 있는 '生山野, 或種蒔'의 문장은 『대관본초』 및 『정화본초』의 '生隴西川谷'이나 『향약집성방』의 '生川谷'에 대응하는 기술로 당대 조선에서 이루어졌던 당귀 채취 및 재배 현황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동의보감』 당귀 조문은 『향약집성방』의 그것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本草'라고 인용 문헌을 밝히고 있는 부분 중 '又云, 如馬尾者好.'라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증류본초』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장의 배열 순서로 볼 때 『증류본초』의 그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동의보감』은 당귀와 관련된 『증류본초』의 문장을 자신의 관점에서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편찬해내는 '선택적 인용을 통한 재편집'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탕액편」 뿐 아니라 『동의보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3]. 다른 예로 인삼 조문에서 『증류본초』는 '泰山'에서 자생하는 인삼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與桔梗相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산지를 구별하지 않고 조선 인삼의 이를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묘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방대한 『증류본초』 내용에 대한 압축이나 아니면 인용 상의 오류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본초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인 性味마저 당귀의 경우 『증류본초』의 '味甘辛, 溫大溫'을 '味甘辛, 溫'으로, 인삼의 경우 『증류본초』의 '微寒微溫'를 '性微溫一云溫'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자생 향약이 지닌 특성을 『증류본초』의 내용을 활용하여 새롭게 서술해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44].

세 번째, 『동의보감』은 당귀 관련 조문 작성에 『탕액』(『湯液本草』), 『입문』(『醫學入門』), 『동원』(『東垣十書』) 등의 다양한 인용 문헌을 활용하고 또 소개하고 있다. 위의 문헌들은 『증류본초』에서는 인용하고 있지 않은 서적들로 『동의보감』「탕액편」 작성에 금원사대가 이후 그리고 명대의 본초학적 지식까지도 새롭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동의보감』 당귀 조문 중 '肥潤不枯燥者爲佳'는 '本草'라는 인용 표기 부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대관본초』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화본초』 중에서는 '衍義曰... 肥潤不枯燥者佳'라는 구절로 기재되어 있다. 『본초연의』의 인용 여부는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계통 간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으로 『동의보감』이 '本草'라고 표기를 한 뒤 『정화본초』의 『본초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이 『대관본초』가 아닌 『정화본초』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동의보감』「탕액편」 호마(胡麻) 조문에서는 『본초연의』를 인용하며 '衍義'라는 표기를

39)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鄕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24.

40) 세종실록 12년 3월 18일(조선왕조실록.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41) 『향약집성방』「향약본초」 중의 산지 관련 논의는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鄕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p.21-22 중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42) '治'의 경우 『정화본초』, 『대관본초』의 표기와 모두 달라 『향약집성방』의 독자적인 표기이거나 아니면 다른 판본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43) 『동의보감』의 글쓰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박석준. 동아시아 전근대 의학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성격.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pp.134-140 참조.

44)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23.

남기고 있어 『정화본초』와는 별도로 『본초연의』 단행본 역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동의보감』 당귀 조문 중 '本草' 표기 부분의 기재를 통해 『증류본초』 판본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止痢疾, 腹痛', '破惡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관본초』에서는 '止痢腹疼', '去惡血', 그리고 『정화본초』에서는 '止痢腹痛', '破惡血'로 되어 있어 표기의 유래가 『대관본초』보다는 『정화본초』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은 『증류본초』를 근간으로 해당 본초의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만 모두 향약과 관련된 기술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의 경우 다양한 본초 서적의 인용 그리고 '선택적 인용을 통한 재편집'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인용 구절의 변형을 통해 본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의 인용 구절, 표기의 차이 등으로 보아 『향약집성방』은 『대관본초』를 그리고 『동의보감』은 『정화본초』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동의보감』과 성화본 『정화본초』

『정화본초』의 판본으로 가장 이른 것은 장존혜(張存惠)가 해인방씨본(解人龐氏本) 『정화본초』에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를 추가하여 간행한 회명헌각본(晦明軒刻本)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1249)이지만 세상에 널리 보급된 것은 명대에 산동 순무 원걸이 성화 4년(1468)에 회명헌본 『정화본초』를 중간한 성화본 『정화본초』이다[45].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의보감』이 『정화본초』를 인용하였다면 조선 활자인 을해자로 간행된 『정화본초』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는 성화본 『정화본초』 아니면 이를 계승한 가정 2년본 『정화본초』이었을 것이다[46].

표 5는 『대관본초』와 회명헌본 『정화본초』, 성화본 『정화본초』 그리고 『동의보감』「탕액편」의 원문 기재를 비교하고 있다[47].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고삼(苦蔘), 올눌제(膃肭臍), 리어담(鯉魚膽)의 기재가 『대관본초』, 회명헌본 『정화본초』와 동일하여 성화본 『정화본초』 인용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홍람화(紅藍花), 도핵인(桃核仁)의 기재는 성화본 『정화본초』만이 동일하다. 특히 청의 단옥재(段玉裁)는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 "송원 이전의 본초 서적 노랫글 등에서는 과일을 모두 '人'으로 표기하였지만 명 성화년간에 본초를 중간하면서 '仁'으로 수정하였다"라고 밝혀 '仁'의 표기가 성화본 『정화본초』의 특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48].

이로 미루어볼 때 『동의보감』은 분명 성화본 『정화본초』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회명헌본 『정화본초』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회명헌본 『정화본초』의 내용은 『대관본초』만으로도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이상 회명헌본 『정화본초』의 활용 유무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Ⅲ. 結 論

이상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증류본초』의 종류와 조선 전기와 후기의 대표 의서인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본초 부문의 특징 및 『증류본초』 활용 판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간행 『증류본초』로는 고려로부터 전해져 오던 『대관본초』를 간행한 조선본 『대관본초』와 을해자로 간행된 조선

표 5. 『동의보감』과 『대관본초』, 『정화본초』 간의 기재 비교

본초명	『대관본초』	회명헌본 『정화본초』	성화본 『정화본초』	『동의보감』
苦蔘	皮肌生瘡	皮肌生瘡	皮飢生瘡	皮肌生瘡
膃肭臍	黃毛三莖共一穴	黃毛三莖共一穴	黃毛三莖共一次	黃毛三莖共一穴
鯉魚膽	去脊上兩筋	去脊上兩筋	去脊去兩筋	去脊上兩筋
紅藍花	産後血運	産後血運	産後血量	産後血量
桃核仁	桃核人	桃核人	桃核仁	桃核仁

본 『정화본초』가 있다. 조선본 『대관본초』는 『대관본초』 말미에 『본초연의』를 덧붙인 원대덕종문서원본 『대전본초』의 번각본이고, 조선본 『정화본초』는 성화 4년(1468) 산동 원걸 각본을 모본으로 삼은 을해자본이다.

『향약집성방』은 『증류본초』의 방대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을 취해오는 소극적인 인용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탕액본초』, 『진주낭』 등 13세기 말 중국의 최신 본초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향명의 기재나 산지 변경을 통해 조선 자생 향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의보감』「탕액편」 역시 『증류본초』를 주된 저본으로 삼고 있으나 『향약집성방』과 달리 조선 자생 향약의 특징 및 산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용 또는 재편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학입문』 등 명대의 본초학적 성과와 당대 조선의 실생활을 수용하여 기존 『증류본초』와는 또 다른 본초 관련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이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중 어느 쪽에 더 의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약집성방』「향약본초」와 『동의보감』「탕액편」의 편찬 년대, 본초 배열 순서, 인용 원문 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첫 번째,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조선 초기에 이미 고려로부터 전해져 오던 『대관본초』가 있었고 이를 저본으로 조선 초기에 재차 간행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세종 15년(1433)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은 『대관본초』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정화본초』 간행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조선본 『정화본초』의 내사기를 통해 선조 10년(1577)에 『정화본초』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조 30년(1597)에 저술이 시작된 『동의보감』은 분명 『정화본초』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본초 배열 순서에 있어 『대관본초』와 『정화본초』는 옥석부, 충어부, 과부 그리고 채부 중에서 배열의 차이를 보인다. 『향약집성방』「향약본초」의 본초 배열 순서는 『정화본초』 보다 『대관본초』와 유사하지만 『동의보감』「탕액편」의 경우 본초 배열 상에 있어 『대관본초』, 『정화본초』와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배열 원칙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원문 인용에 있어 『향약집성방』은 『증류본초』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으며, 『탕액본초』, 『진주낭』 등을 인용하고, 약재의 산지와 관련된 기재 역시 수정되어 있다. 특히 『대관본초』와 『정화본초』 판본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인 『본초연의』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것과 본문의 표기가 『정화본초』가 아닌 『대관본초』를 따르고 있는 점은 그 저본이 『대관본초』이었음을 확인하여 준다. 『동의보감』의 경우 『증류본초』의 문장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문장의 재편집을 통해 해당 본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용처를 『본초』로 표기한 후 『본초연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 점과 인용 구절의 표기가 『대관본초』보다는 『정화본초』와 유사한 점은 그 저본이 『정화본초』임을 추정케 한다.

『증류본초』의 방대한 정보는 조선 본초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증류본초』의 대표적인 판본 계통인 『대관본초』와 『정화본초』를 입수하여 자신의 활자로 간행해내었으며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향약본초」와 『동의보감』「탕액편」까지도 편찬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약집성방』「향약본초」는 『증류본초』를 조선 자생 약재, 향약을 중심으로 새로이 재편한 저작이며, 『동의보감』「탕액편」은 『향약집성방』의 향약 활용이라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증류본초』로 대표되는 정통 본초 서적 계열의 특징을 놓치지 않고 있는 독립된 본초 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조선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의학, 특히 본초학과 관련 보편적 논의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자신이 처해있는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본초 정보를 충분히 재생산 할 수 있던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63.

46)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248, 岡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141.

47) 晦明軒本 『정화본초』와 成化本 『정화본초』 판본간 차이는 李健(2009)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p. 63-68).

48) 段玉裁. 說文解字注(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365.

Ⅳ. 참고문헌

<원전류>

1. 經史證類大觀本草(마이크로필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M古3-2003-20, 21).
2.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769-25-1~25).
3.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76.
4. 김신근 편. 허준 저. 한국의학대계 14 東醫寶鑑(영인본) 1, 4. 서울. 여강출판사. 1992.
5. 김신근 편.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저. 한국의학대계 7 鄕藥集成方(영인본) 5. 서울. 여강출판사. 1988.

<단행본>

1. 岡西爲人. 本草槪說. 大阪. 創元社. 1983. p.120, 121, 141. pp.113-114.
2.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219.
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736.
4. 段玉裁. 說文解字注(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365.
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322, 353. pp.356-357.
6.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 101, 246, 247, 248, 249.
7. 尙志均. 本草人生.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p.368.
8. 안상우 외. 향약집성방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p.6.
9. 안상우 외.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의 옛 의학책.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p.172-173.
10. 王军 외 교정. 张从政 저. 儒门事亲. 金元四大家医学全书. 天津. 天津科学技术出版社. 1999. p.495.
11. 王象礼 주편. 陈无择 저. 三因极一病证方论. 陈无择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05. p.33.
12. 진주표 역. 허준 외 찬.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897.
13. 许洪 편. 韩刚 정리. 增广太平惠民和剂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2. p.2.
14. 한독약사관 편. 한독약사관 소장품목록. 서울. 한독약사관. 1970. p.222, 234.

<논문>

1.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鄕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24, 25.
2.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5). p.62, 63.
3. 李健. 清以前证类本草的版本研究. 中国中医科学院 석사학위논문. 2009. p.31, 63, 71,
4. 이상인. 동의보감을 본초학 영역에서 살펴본 특징과 끼친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1992. 7(1). 1992. p.23, 25.
5. 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1982. 4(1). p.113.

<기타매체>

1. 국립중앙도서관. Available from: http://www.nl.go.kr. 2011.08.19.
2. 전자관보. Available from: http://gwanbo.korea.go.kr. 2011.08.19.
3. 조선왕조실록.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2011.08.19.
4. 中華百科全書. Available from: http://ap6.pccu.edu.tw/encyclopedia_media. 2011.08.19.